

제17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주관 : 노동부, 매일경제신문사

취재, 사진 | 임동희 기자



2009년도 제17회 안전경영대상

장소: 서울 15 동대문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 | 주최: 노동부·매일경제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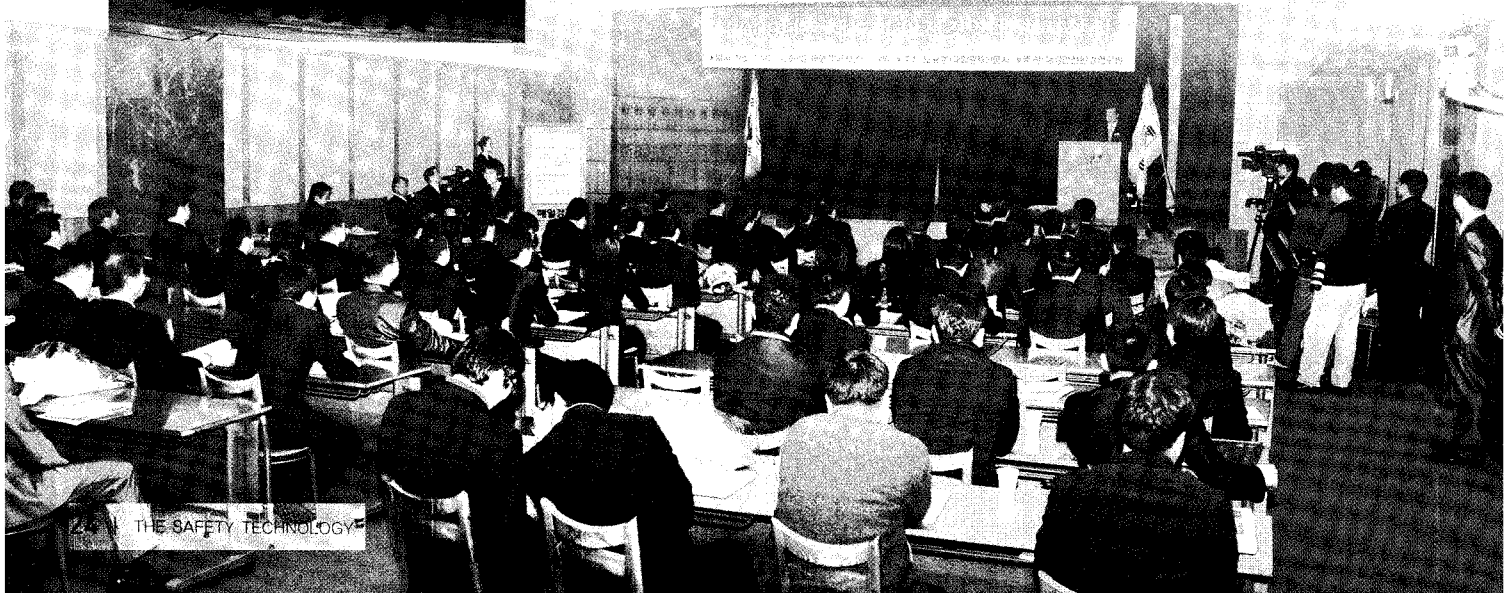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안전경영대상'이 지난 8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됐다. '안전경영대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7회째를 맞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고경영자가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모쪼록 이번 안전경영대상을 계기로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노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안전경영대상에는 전국에서 총 22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정도, 노사 안전의식 파급정도 등을 평가하여 총 6개 업체와 1명의 수상인원을 선정했다.

그 결과 종합대상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금호폴리켐(주)(대표이사 길병위)이 수상했다. 최근 3년간 총투자액 대비로 평균 28% 이상을 안전보건에 투자하여 각종 안전정책을 펼친 점이 이번 수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대상의 경우 ▲제조업 중소기업부문에서는 (주)광희(대표이사 송병원)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서는 STX에너지(주)(대표이사 윤제현) ▲기타산업부문에서는 영남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조정래) ▲건설업 부문에서는 (주)대우건설과주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대표이사 서중욱)과 삼성엔지니어링(주)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 현장(대표이사 정연주)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로상에는 건설안전협의회 이정규 회장이 수상했다.

참고로 이번 안전경영대상 수상기업들은 향후 2년간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받고, 산재예방 유공자 정부 포상 시 우대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2009 한국안전관리 · 소방산업전

관람형 탈피, 현장중심 전시회로 '우뚛'

취재, 사진 | 연슬기 기자

최신 산업안전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안전문화를 엿볼 수 있는 '2009 한국안전관리 · 소방산업전 (KOSAF2009)'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경상남도과 창원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안전관련업체 60개사가 참여, 200개의 부스를 열어 산업안전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기존 전시회와는 색다른 차별성을 두어 참가자는 물론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먼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국내 최고의 안전관리기관은 물론 산·학·연 안전 전문가들을 대거 초빙해 대규모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열었다.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전시회가 보는 재미를 주었다면 세미나를 통해서도 듣는 재미도 얻은 셈이다.

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가 상주해 참가업체를 맞이하는 형식의 독창적인 바이어상담회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바이어가 원하는 품목을 지정해 상담을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 참가업체가 바이어를 선택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

참가한 바이어들도 구색을 맞추기 위한 초청형식이 아닌 두산중공업, 포스코특수강 등 경상남도내 소재한 대기업의 안전·소방·보건 담당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상담회의 질을 한껏 높였다.

이밖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시기간 동안 체력측정관을 운영하여 업체관계자와 관람객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폐활량 검사 등 건강검진행사를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주)K&C의 한 관계자는 "전국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는 경상남도의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일조하고자 창원에서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근로자 및 일반인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